

빛(Light)과 광선(Rays)을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미래주의와 러시아 광선주의(Rayonism)를 중심으로 -

박 윤 정* · 양 속 회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의복은 각 시대나 사회 그리고 문화적 상황속에서 인간을 본체로 하여 궁극적인 이상을 표현하는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은 의복 고유의 특수성을 정의하고 의상이 예술적으로 형성된 현실의 한 유형이며,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매우 특수한 기능적 예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의 미의식을 끊임없이 변화 발전 시켜온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미의식을 표현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빛(Light)과 광선(Rays)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단순히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의상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미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살펴보고 다가올 21세기 패션의 미의식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빛의 意味는 두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념의 의미로서의 빛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위한 조건이 되고 또 사물을 보게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다른 물질을 활성화 시키는 힘과 진리의 메타포로서 미의 객관적인 원리로서 이해되어 왔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빛은 예술적 표현대상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 주위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새로운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다. 빛은 비물질적인 재료로서 자연물이나 인공물과 달리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한다. 비물질적인 3차원 형체는 광선(Rays)의 굴절실험을 통해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3차원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비물질 예술이 탄생되었다. 이와같이 화학분야에서 새로운 시각혁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빛과 광선에 대한 관심은 중세이래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창조적 근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빛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지오르지오네 와 티치아노등이 명암의 밀집을 제거함으로써 눈부신 빛의 효과를 창조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은 자연을 항상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면서 색채와 빛의 끊임없는 조화를 발견 표현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빛의 효과를 좀 더 개성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구하였다. 이러한 바로크 시대의 회화관은 들라크르와(E. Delacroix)에게 연결되어 19세기 인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상주의자들은 자연의 미묘한 조화의 근원을 태양광선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들은 순수한

빛의 변화에 따라 화면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상주의를 계승하여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신인상주의는 “광선과 색채의 탐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색채를 분할하여 병치시킴으로써 색채와 빛으로 향하게 된다는 새로운 시각혼합의 이론인 분할주의(Divisionnisme)기법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20세기 초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빛과 광선의 추구를 그들의 예술적 미의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Futurism)와 러시아의 광선주의(Rayonism)가 그것이다. 발라와 보치오니를 주축으로 한 미래주의자들은 초기에는 인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광선의 추구를 분할주의적 기법에서 출발하였다. 즉 빛을 분할주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다이나미즘 이론을 조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빛과 광선의 추구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의 목표로 출발하였던 인상주의와 미래주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즉 빛의 상호침투를 통해 다이나미즘을 표현하려했던 초기 미래주의 화가들은 색채의 분할기법을 통해 과학적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파악한 빛의 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빛의 형태보다는 전기와 같은 인공적인 빛을 추구하였다. 이와같은 미래주의자들의 분할이론은 가로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파악한 빛의 운동성에 근거하여 전기의 다이나미즘을 전달하려 한 것이다. 이후 미래주의는 입체-미래주의(Cubo-Futurism)로 변화되면서 러시아에서 발전하였다. 그것은 색채와 선의 다이나믹한 조화속에서 생겨난 신원시주의자(Neo-Primitivist)들과 연합되었으며 그 당시 유럽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프랑스의 입체파를 재해석한 특별한 스타일로 받아들여졌다. 말레비치를 선두로 한 입체-미래주의는 곧 러시아의 광선주의(Rayonism, Luchism)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선주의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하면서도 짧은 기간동안 유행하였던 스타일이다. 그것은 라리오노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의 아내 곤차로바에 의해 발전되었다. 광선주의의 중심적 특징은 “여러가지 물체들로부터 나온 반사광선들의 횡단”이다. 그 대부분은 선과 색에 의한 것이었다. 1913년 그들이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광선주의 선언문”을 보면 공간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선주의 회화의 목적은 선택된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광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공간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광선은 항상 선과 색으로 표현된다. 즉 회화의 본질은 채색된 부분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강렬함을 주는 최선의 색채들간의 결합에 있다. 라리오노프의 광선주의 이론에 의하면 미술가는 보이는 세계의 여러가지 물체를 버려야하며,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복잡하게 교차하는 광선을 표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선주의자들은 큐비즘과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제의 표현에 있어서도 평행적이거나 집중적인 색의 광선들이 이루는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라리오노프의 강렬한 성격과 통찰력은 말레비치와 타틀린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것은 이후 절대주의(Suprematisme)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개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게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빛과 광선에 대한 추구는 예술 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그 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870년 인상주의 시대부터 시작된 다양한 색채와 직물에 대한 관심은 현대 패션 발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870년대에 이르러 샤르돈네(H. B. Chardonnet)에 의해 인조섬유가 개발되었고, 크로스(Cross)와 베반(Bevan)에 의해 비스코오스 레이온이 발명되었다. 특히 많은 직물을 필요로 하는 이 당시 유행은 직물의 생산을 촉진시켰으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의 발달은 빛과 광선에 의해 색이 달리 보이는 테피타,

브로카이드, 공단, 벨벳, 다마스크, 실크와 같은 직물들을 크게 유행시켰다. 이와같이 광선에 의해 색이 달라 보이는 직물들이 널리 유행하게 된것은 이 시기에 광선의 추구로 일관하고 있던 예술사적 분위기가 직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도 빛과 광선으로 표현된 디자인이 그대로 유행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빛과 광선을 응용한 예를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상주의 시대에 자연의 외광을 중시하면서 등장하였던 태양광선과 같은 밝은 빛을 표현한 의상이다. 둘째는 미래주의자들이 인공적인 빛과 광선을 통해 다이내미즘을 표현하려는 것과 일치하는것으로 대상의 명암보다는 투명도가 다른 선과 양감을 상호 교차하는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빛의 다이내믹한 성질과 새로운 공간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셋째는 인상주의자들과 미래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분할주의 이론을 의상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반짝이는 빛의 형태를 작은 점의 형태로 분해하여 만든 디자인 이다. 넷째는 광선주의자들이 선택된 대상으로 부터 반사된 광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공간형태를 창조하면서 그 주된 표현기법으로 선과 색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빛과 광선의 추구는 16세기 르네상스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나타났으며 21세기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